

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pp137~16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한국인의 정서를 통해 본 해원

— 한과 한풀이를 중심으로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요약》

인간의 역사는 원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라고 하는 역사적 시점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는 없으며, 오히려 물질문명의 발달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한 측면인 정신과 사상의 파괴, 윤리도덕의 타락 등으로 인한 증폭하는 원한은 인류를 진멸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연구는 해원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원과 해원을 한과 해한(한풀이)으로의 대치를 통하여 원과 해원의 좁은 의미에 해당되는 한과 해한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내면 깊숙히 숨겨져 있는 민족적 정서로서의 한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으며 민족문화와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해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단순히 복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해한구조를 띄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해원사상이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 핵심 주제어 : 한(恨), 원한, 한풀이, 한의 맺힘과 풀림, 무속.

I. 들어가는 말

해원상생(解冤相生)이란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도통진경(道

通眞境)과 더불어 4대 종지(宗旨의) 하나이며, 실천윤리의 대강령이다. 더우기 갈등과 반목과 파멸의 상극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고찰함에는 우선 전경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선학들의 심도있는 많은 논서들이 나와있고, 특히 해원상생의 특집호 <大巡思想論叢> 제4집 에 훌륭한 논문들이 있는 바이다. 그래서 논자는 해원상생 중에서 해원사상만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각도란 다른 아닌 우리의 민족적 정서로 조명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적 정서와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과 해원의 개념은 한과 한풀이다. 원은 한에 해원은 해한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 물론 원과 한 또는 해원과 해한을 등치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논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冤)과 원(怨) 그리고 한(恨)은 비록 같은 개념은 아니나,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다. 이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선학들이 해온 바이므로 여기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¹⁾

논자는 본고에서 원(冤)과 해원(解冤)의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민족적 정서의 한 단면으로 한과 해한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해한은 보다 일상적인 속어로 '한풀이'라고 이해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줄고는 우선 한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과악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한이 어떻게 맺혀왔고 풀려왔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우리 민족적 정서로서 복수의지로서의 한이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화해로 한을 풀어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논지를 전개함에 논자는 오직 한과 해한이라는 개념에 천착하고자 하나, 한에 관한 고찰에는 원(冤)과 원(怨) 그리고 원한(冤恨, 怨恨)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冤과 怨 그리고 恨의 관계를 밝힌 논문은 많으나, 특히 다음의 논문에서 많은 자료를 얻었다. 朴龍哲, 「典經에 나타난 冤의 本質과 構造」, 포천: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집, 1995. 林泳暢, 「解冤相生의 多元的 考察」, 포천: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高南植, 「典經에 나타난 冤의 樣相과 解冤」, 포천: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李京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포천: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朱賢哲, 「冤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연구」, 포천: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언급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원(冤)을 고찰함에 원(怨)과 한과 원한의 개념을 언급하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논고는 한과 한풀이에 대한 것이나 논고과정 진행됨에 따라서 원(冤)과 원(怨) 그리고 한의 관계는 물론 해원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하리라 본다.

II. 민족적 정서로서의 한

우리말 사전에 한을 찾아보면, 원한(怨恨)과 한탄(恨歎)이라고만 되어있다. 다시 원한과 한탄을 찾아보면 ‘원통한 생각’과 ‘원통한 일이나 뉘우침이 있을 때 한숨짓는 탄식’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패배나 억압 등에 의한 비애적 감정이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된 것이다. 원(怨)과 유사하나 “원은 주로 타자에 대한 것 또는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며, 한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마음이며, 자기 내부에 쌓여가는 정감(情感)이다”²⁾ 그래서 원은 가학적이고 한은 자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통함(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움)에서 비롯되는 한은 한탄 -> 뉘우침 -> 한숨 -> 체념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원망 -> 증오 -> 저주 -> 복수의 단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 때는 한이 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한은 비대상지향적 감정으로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해진 자책이 섞인 좌절의 심리상태로 응어리지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고 원만 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등의 중국고전 속에는 한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 원에 대해서만 나온다.³⁾ 중국의 원은 다분히 현세적 명분론에서 나온 것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나 《열국지》 《삼국지》 등에서와 같이 처절한 복수극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⁴⁾ 이것은 유교적 현실주의가 복수로 처리된 것이라고 볼

2) 李御寧,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년 9월 23일자. 文淳太, 「韓國文學에 나타난 恨의 研究」, 숭전대학교 대학원, 1983, p.15. 재인용.

3) 문순태, 위의 책, p.16.

4) “한국인의 ‘한’이 차지하는 의미 공간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넓고 크다. 왜냐하면 한국인을 다스려온 문화나 가치관은 외부 충격에 주어진 긴장의 외향 처리를 부덕시켰기에 처리 공간이 확장되고 따라서 넓을 수밖에 없었다.”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 구조 2』 (서울:

수 있다. 원에는 원으로 대하라는 공자의 입장인 원풀이 즉, 복수를 효의 명분이나 충의 명분으로 삼은 까닭이다. 일본의 원 또한 복수를 통하여 승원이 되고 있다.⁵⁾ 일본의 《주우신구라》는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여기서 아사노가 기라에게 품고 있던 감정은 원이고 원을 해결하는 최종수단은 칼이었다.

몇 권의 인류학 보고서에 아프리카 등지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한 감정을 기록한 것이 있으나, 그 역시 한국적인 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서양에도 한의 정서와 동일한 개념은 없다. 원과 한에 가까운 영어에는 regret(유감)·resentment(원망)·rancour(적의)라는 단어 등이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한과는 거리가 멀다. 서양인들은 어떠한 외부 충격에 납득이 가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충격에 대하여 자신을 대립시키는 외향 처리를 잘 하므로, 그것이 한으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채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소극적이고 자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마음 한 곳에 웅어리 지어 맺힌 것이 한이다. 한의 웅어리는 단순한 감정의 한 양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어혈이다. 이러할 때의 한은 단순한 민족 고유의 정서가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다. 세계의학계에 '화병'은 오직 한국인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면 왜 한은 한국인에게만 있으며 그것이 한국적인 정서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자.

첫째는 불안과 위축의 역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는 내란과 외침과 민란으로 점철되었다. 끊임없는 내란과 외침은 백성들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만들고, 드디어는 퇴행적 심리현상을 만들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우울증이 심하게 되었다.⁶⁾

둘째는 유교 중심 사상이 빚은 계층의식 때문이다. 유교는 인륜적 질서를 중시한 결과 반(班)·상(常)이나 적(嫡)·서(庶)의 구별로 관리의 등용이나 직업의 선택은 물론 혼인이나 거주와 자유가 제한 받았다. 더우기 이러한 질서 아래에

신원문화사, 1993), p.201. 박용철, 앞의 논문, p.403, 재인용.

5) 이어령, 앞의 글. 문순태, 앞의 책, p.17.에서 재인용.

6) 尹泰林, 『韓國人』(서울:현암사, 1970), p.275.

서 천민이나 노비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의 한은 풀이 깊어 원한으로 간직되었을 것이다.

세째도 역시 유교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다. 이 사상은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종의 미덕을 강조한 일종의 억압인데, 여기서 또한 많은 여한(女恨)이 생겼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남성의 향락의 대상이거나 후손들을 생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칠분(七出)<不事舅姑・無子・淫佚・妬・惡疾・多言・竊盜>이니 하는 등의 남성본위의 결혼조건과 재가금지 등의 여성 억압정책이 있었다. 이러한 한국 여인사는 굴종과 인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네째는 가학적 사대부와 그에 따른 피학적 민중이 받는 억눌림 때문이다. 이것은 왕조의 부패에서부터 비롯하여 사대부와 관원들이 백성들을 경제적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중 수탈로 인하여 빈부의 차가 심화되었고, 더우기 15세기 이후에는 농민들이 과전법(科田法)에서 토지분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료층에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빈부의 심한 격차가 있을 때 자연히 가난한 자가 가진 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밖에도 고려 태조 왕건이 새 왕조를 세울 때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중 8조에서 <車覬 이남 公州江 外의 山刑地勢가 反弓水이므로 人心도 그와 같다>고 하여, 가장 저항적이었던 백제 지방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인물 등용 등에 소외한 데서 온 한도 있었다.⁷⁾ 그리고 나라 잃은 망국의 한, 계모와 의붓자식, 이복 형제 사이, 이웃과의 이해관계에 의한 싸움 등에 의해서도 많은 한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이 맺히는 발생 동인 중에는 그가 소속된 집단 의식이 축적된 것도 있다. 이 점에서 한은 한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축적된 잠재의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열규는 한국인을 일러 원한인(怨恨人)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서러움을 남달리 잘 타고, 원한을 남들보다 더하게 가슴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다. 굳어진 민족성이라고는 물론 말할 수 없으나, 겪어온 역사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마련된 삶을 살아온 것이겠다.”고 한다.⁸⁾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

7) 申一徹, 『韓國의 思想家十二人』 (서울: 현암사, 1975), p.25.

8) 김열규, 『恨脈怨流』 (서울: 주우, 1981), p.15.

의 한을 다음과 같은 한탄조로 토로하고 있다.

혼자 마음 속으로 들끓는 노여움, 분함, 분통인가 하면, 남을 향한 저주고 앙갚음의 독기운일 때도 있다. 자책으로 가슴을 베는 한이 있는가 하면, 남에 대한 원망으로 칼을 가는 원한도 있다.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는가 싶다가도 얼음처럼 차가와 지기도 한다. 가벼운 후회인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대한 땅을 치는 통곡일 수도 있다. 한을 남기지 않겠다고 이를 앙다물면 야무진 성취동기가 되고, 목적을 향해 내달는 원동력이며 충격이 되기도 한다. 남에게 원한은 끼치지 말며 살자고 다짐을 하면, 선린(善隣)을 위한 윤리의식이 되기도 한다. 내게 한이 남게 한 세상을 그냥이야 둘 수 없노라고 치를 떨면, 누구에게나 날벼락으로 떨어지는게 한이다. 하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가 다하지 못한 뜻이 한으로 남기에 비슷한 처지의 남을 위해 한막이 구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애기도 드물지 않게 전해져 있다. 한국인은 그들의 삶이 더 가라앉을 데 없는 바닥에 다다랐을 때, 한스러워 못살겠다고 한다. 따라서 삶이 더 오를 데 없는 절정에 올랐을 때,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노라는 말에 그들의 감회를 담는다. 한국인의 한은 극과 극 사이를 헤메고 하늘 끝과 지층 가장 깊은 곳 사이를 넘나든다.⁹⁾

III. 한의 맺힘과 풀림의 구조

이상과 같은 한국적 정서로서의 한¹⁰⁾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아직도 모호하다.

9) 김열규, 앞의 책, pp.15-16.

10) 이러한 한국적 정서로서의 한을 천이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적 한은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怨, 嘆)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초극의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속성(情, 願)을 이룩해 간다. 한국적 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찾게 된다. 이처럼 한국적 한이 공격적 퇴영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되 끊임없이 질적 변화를 지속하여 우호성 진취성으로 지향하게 되는 것은, 한국적 한이 그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한국적 한의 참된 독자성은 이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 가치 생성의 기능이란 ‘삭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p.51. 박용철, 앞의 논문, p.403, 재인용.

여기서 한국적 한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것이 원으로 발전해 가지 않고, 우호적이고 진취적인 질적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속성으로 생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 생성 기능을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한의 의미를 정리하면,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한 생각으로 욕구나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 등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얹힌 복합적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의 속성이 응어리지고 얹히고 맺힌 의식의 밑바닥에 가라 앉은 심리상태이며, 동시에 풀림이라는 대립 개념과 한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 맺힘은 한의 발생과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이 발생하고 생성되는 구조를 깊이 살펴보면, 그 내부에는 맺힘과 맺음이 있다. 맺힘은 타인에 의한 것이고, 맺음은 자신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 발생과 생성은 모두가 그것의 전제조건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눌 수 있다. 전제조건이란 한이 발생하거나 생성되는 요인으로 남이 부여하는 경우와 스스로 일으키는 경우이다. 전자는 타인이나 사회제도 또는 환경 등이 한이 맺히게 될 자의 욕구나 의지를 좌절시키고 그 심리적 좌절이 삶의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와 물리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삶이 파국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상처와 아픔은 타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타상(他傷)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장차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갈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스스로 내는 상처와 아픔이기 때문에 자상(自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한이 맺히는 것은 아니다. 한이 맺히게 될 전제조건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한이 맺히고 생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의 발생조건들을 치유하거나 훌훌 털어버리고 잇는 자세에는 한이 맺히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조건들에 처하여 슬픔·후회·자책·분함·억울함·원통함·저주·앙갚음 등과 같은 감정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치유하거나 망각하지도 못하고 편집적이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태도에서 한이 맺힌다. 이러한 점에서 한의 생성요건은 한의 전제조건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 따라서 한은 외부로 분출되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저변에 침잠된 응어리와 같이 맺혀진 의식상태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한을 '고(매듭)'에 비유하기도 한다.

천이두는 '삭임'이라고 하였다. 삭임은 것갈을 삭히듯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한다. 그러나 논자는 우리 민족에게 한은 내부적으로 삭히기도 하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하는 '풀림' 또는 '뿔'의 기능이 보다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의 속성은 맺힘과 맺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맺힘이나 맺음의 반대 쪽에는 풀림과 풀이 있다. 풀림의 경우는 맺힌자 스스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타(他)에 의하여 풀리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풀의 경우는 맺힌 자 스스로가 푸는 것이다. 이 풀림이나 풀은 한의 맺힘과 맺음의 응집력에 비례하는 힘을 필요로 하며, 이 힘이 외부로 발산될 때는 맺힘 또는 맺음에 비례하는 성취동기의 추진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의 풀이에는 크게 세가지 양상을 띤다. 그 첫째는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삭히는 것이다. 둘째는 복수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원한을 일으킨 자에게 앙갚음을 하는 것이다. 세째는 자신에게 원한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제삼자에게 자신의 한을 전이시키는 것이다. 하나는 자신에게 맺힌 한을 좋은 방향으로 전이하는 경우이다. 즉 한의 소유자가 자신과 같은 다른 한의 소유자의 편에서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맺힌 한을 나쁜 방향으로 전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한의 소유자는 풀 대상의 선택을 무작위로 하여 어느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이 입는 상처와 아픔을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행동으로 푸는 경우이다.

이처럼 한에는 대립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내부로의 삭힘과 외부로의 발산, 성취욕구와 파괴충동, 증오와 사랑, 인내와 자포자기, 열정과 비참 등의 대립적인 묶음들이다. 이로 보아 한은 정반대의 속성들이 하나로 묶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의 맺힘과 풀림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 맺힘과 풀림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을 다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리적으로 <맺힘과 풀이>의 짝이 애기될 수 있는 외에, 심리적인 결해(結解)의 대우(對偶)가 역시 논란될 수 있다. 아픈 것은 무엇인가 웅어리지거나 맺히는 일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풀이이다. 고뿔을 풀고 몸살을 풀고 그리고 담을 푼다. 심리적으로도 시름이 맺히고 풀리고 한이 또 맺히고 풀린다. 그런가 하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일이 풀려 나간다'고 하거나 '형편이 영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밖에 '날씨가 풀린다'고도 한다. <맺힘과 풀이>의 짝은 한국인의 생활 도처에 깔려있는 셈이다. '맺힌 것을 풀기 위해 산다' - 그것은 한국인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살다 보면 무엇인가 맺히고, 맺히면 풀어야 하는 것' - 이것이 한국인의 인생관의 한 토막인 것이다.¹¹⁾

이러한 한이 체념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 어혈(瘀血) 상태로 오래 축적될 때, 불안을 유발시키고 불안은 불만으로 변하여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스스로 극복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분출하거나 승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한이 억제로 인한 불안의 울증에 걸리지 않고, 복수로 폭발하지 않고, 체념으로 끝나서 무력에 빠지지 않게 우리 문화는 발달했다. 이러한 문화가 풀이 문화이다. 이 한풀이 방법은 민요 또는 탈춤이나 판소리 등과 같은 민중예술에 잘 나타나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예술의 한풀이의 과정들 중에서 주목할만한 하나의 특징은 익살과 해학이라는 놀이를 통한 한풀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전통 민중예술의 하나인 탈춤에서 말뚝이와 취발이는 웃음과 해학으로 상민들을 신원하고, 굿판에서는 무당이 서러운 푸념과 뉘두리로 울음바다를 만들다가도 이내 익살과 육담으로 구경꾼들의 허리를 꺾어놓기도 한다. 또한 굿의 끝마무리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무당과 함께 더불어 춤추고 노래부름으로써 그 제의가 발휘하는 유희적 기능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특히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행위(娛神行爲)’에는 유희의 기능이 절정에 달해서 무제(巫祭)는 곧 굿->놀이->풀이로 변해버린다. 이처럼 한풀이에 놀이와 같은 유희가 들어있는 것은 한의 멧힘이 신바람¹²⁾에 의해 풀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해학이고 풍류이다. 이러한 우리 문화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땅의 연희물은 눈물과 웃음, 침통과 익살이 이루는 역동(力動) 관계의 교묘한 경영(經營)이다. 그 역동 관계가 본원적으로 삶의 리듬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삶의 명암과 경중이자, 부침이고 장단(長短)이다. 우리들이 즐겨써 온 말버릇대로 하면 멧힘과 풀림이다.¹³⁾

세속적 관습과 규범이 무거움이고 단힘이고 굳어짐이라면, 신바람이나 신명은 철썩요 해방이요 가벼움이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멧힌 응어리를 풀어버

11) 김열규, 앞의 책, p.37.

12) 신바람은 일이 잘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여 기분이 좋고 기운이 솟는 마음의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신바람은 일상에 있어서 일의 능률과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13) 김열규, 위의 책, p.46.

리는 힘이다. 한이라는 암울하고 퇴행적인 의식의 땃힘을 밝고 진취적인 해학으로 푸는 문화는 한국적 민중예술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예술에는 궁중이나 사대부들이 즐기는 엄숙한 예술에 없는 건강한 해학과 신바람이 따라다닌다. 그렇다고 궁중이나 사대부들에게 한풀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정치라든가 문학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한의 땃힘과 풀이의 논리가 있다. 우리 민족에서 이 한의 땃힘과 풀이의 정서는 위로는 하늘이나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땅이나 천민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은 물론이고, 과거 선조에 땃힌 한이 세세생생 이어져 우리를 거쳐 후손에까지 연결되는 유전형질을 갖고 있다.

IV. 설화와 민속음악에 나타난 한과 한풀이

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하층계급이다. 지배층이나 부유층에는 한은 거의 없고 원만 있다. 따라서 지배층이나 부유층의 일상이나 예술에서 한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하층 민중들의 생활예술인 설화 민요 산조 판소리 등에는 처절한 한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마음 깊이 땃힌 한을 표현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대부분 모두가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전설이나 민담에 한을 담은 것들이 많다. 대부분 ‘옛날 옛적에’로 시작되는 민담이나, ‘이조 세종대왕 시절 서울 남산골에서’로 시작하는 전설의 주제는 거의가 권선징악이다. 내용의 전개는 간단하다. 마음씨 착한 이와 악한자가 대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악한자가 착한자를 괴롭혀서 고통을 받으나 결국은 착한자가 승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줄거리로 전개된다. <홍부전>류의 설화가 이에 속한다. 민중들은 암암리에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한을 담았으며, 그것을 남에게 들려줌으로써 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화 가운데는 원귀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 그 내용은 주로 생전에 땃힌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지닌 그 한을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 의탁하

여 쏜다. <장화홍련설화>나 밀양의 <아랑설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신원설화(伸冤說話)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민속신앙의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다. 민중들에게는 착한 한이 맺힌 원귀는 무서운 대상이며 동시에 악을 징계하는 힘을 갖는 것으로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설에서도 한에 얽힌 것이 많이 전해내려 온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의 당산 기슭에 있는 별신당(別神堂)의 전설은 나당 연합군과 백제와의 전쟁에서 죽어 땅에 묻히지 못하고 떠도는 원혼들의 한에 관한 전설이다. 이 한을 품고 죽어서 마을에 재액을 내려 별신당을 짓고 위로해 주자 마을의 재액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또 강원도 명주군 안인진 해랑당(海娘堂)에는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한을 품고 죽어 마을에 재앙을 내리자 사당을 지어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 이것들은 원령이 한을 풀고서 지역 수호신으로 전이한 좋은 예이다. 이것이 신앙 형태로 자리잡아서 서낭굿이나 별신굿¹⁴⁾ 유형의 무속이 되었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 저절로 생겨나 전해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과 직결된 예술이고 민족의 정서가 잘 함축되어있는 예술이다. 더우기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 속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노래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소재 또한 다양하고 감정표현도 구상적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요에는 설화보다 한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시집살이, 과부의 설움, 노동의 고됨, 남편의 처첩관계, 시누이 율케 사이의 알력 등 서민생활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것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민담이나 판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반응에 구애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 여기에 민요의 진솔성이 있으며 한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한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 정든님은 어디가고 눈물만 나네’하는 투의 민요이다.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류의 대부분이 자신의 한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한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민요를 보자.

14) 동해안 일대에서는 벨신, 벨순, 배생이, 별순, 뱃신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대관령국사성황신화> <울릉도대하동성황당전설> 등이 있다.

잠아 잠아 오지 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난다.

논에 가면 갈이 원수
 밭에 가면 바래기 원수
 집에 가면 씨누 원수
 세원수를 잡아다가
 참실로 목을 매어
 범든 골에 영고지나.¹⁵⁾

남도지방에서 채집된 위의 두편의 민요는 노동의 고됨과 시집살이의 고달픔 그리고 시누이에 대한 증오가 직설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서민 여자의 한은 가난 과로 시댁식구의 학대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민들의 한은 모두 근원적 운명론으로 귀착되고 만다. 그들은 원망과 증오와 슬픔과 고됨을 기껏 민요로 노래하는 것으로 참아내어야 했으며, 결코 반사회적이거나 부도적인 방향으로 항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인 민요를 통해 곧 자신들의 한을 투영하여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¹⁶⁾

예술성이 높은 전통음악 중에서 한의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성악곡에서는 판소리이고 기악곡에서는 산조(散調)이다. 기악곡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전통적 미의식 내지는 정서적 특질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산조는 무속음악인 시나위와 판소리의 진양조와 중모리 가락을 도입하여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장단은 느린 진양조부터 빠른 단모리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죄었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의 대비에 의한 멋이 있다. 특히 느린 진양조 가락

15) 문순태, 앞의 글, p.28.

16) 민요의 서정성이 한을 잘 표현하고 있으나, 그 가락에서도 한을 찾아 볼 수가 있다. 특히 남도 민요인 전라도 지방의 민요는 계면조를 주로 사용하여 비장한 느낌을 돌운다. 이런 전통을 이어 판소리가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도 민요도 하늘거리는 콧노래처럼 들리고, 어딘지 모르게 한탄스러운 느낌이 났혀 있다. 그런 느낌은 결국에 복받쳐 올라 울음울듯하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pp.767-768.

은 한에 가까운 슬픔의 정서가 담겨있다. 그것은 진양조에 쓰인 음조식의 계면조(界面調)¹⁷⁾와 우조(羽調) 가락이 뚜렷한 예술의 미적 질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의 정서를 독특한 음조로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조라는 기악 독주곡은 조선 말기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천민에 의해서 전승되어 내려온 민속음악인 판소리나 무속의 시나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형성된 음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슬픈 한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천민이라는 신분과 현실적으로 서글픈 인생 경험을 음악이라는 표현수단을 통하여 마음껏 승화시키려는 것이 산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조선시대 전통적 계급사회 속에서 천민이라는 사회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만 했던 슬픈 광대들의 축적된 한이 전통사회의 한계를 뚫고 넘어서려는 가장 강한 의지인 비장감으로 표현된 민속음악이다. 이러한 산조의 전 악장을 통하여 주된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음악적 내용의 미적 표현은 현실적 슬픔인 한과 한을 극복하려는 비장감을 계면조 가락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¹⁸⁾

성악곡에서 한의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한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노래)와 아니리(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창악적 구비서사시이다. 그것은 구비서사문학의 독특한 발전형태인 동시에, 한민족이 지녀온 갖가지 음악 언어와 표현방법이 총결집된 민속악의 하나이다. 이 판소리도 한많은 천민 광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에는 민중의 체취와 슬픔과 한이 분출된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에서도 느린 진양조 장단과 계면조 가락에 슬프고 억압된 한을 싣고 있다.

그러나 산조나 판소리가 맺힌 한만을 표현하는 퇴해적 슬픈 음악만은 아니다. 산조건 판소리이건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빠른 장단을 이루며, 여기에 계면조의 슬픈 선율에 이어 밝고 화창한 느낌을 주는 평조, 웅장한 느낌을 주는 우조, 경쾌한 느낌을

17) 판소리나 시조의 가락은 계면조에 한을 싣는다. 이 계면조 가락을 김열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마디로 ‘호느껴 처창(淒愴)하다’거나 ‘애원처창(哀怨淒愴)’이라고 했지만, 옛날의 명창들은 청천 하늘의 학의 울음 소리, 낙목한천(落木寒天)에 찬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소리, 서리 내리는 가을 달밤의 기러기 소리 등과 같이 계면조의 느낌을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다”. 김열규, 앞의 책, P.33.

18) 문순태, 앞의 글, p.23.

주는 경드름, 씩씩한 느낌을 주는 설령제의 선율이 있다. 이것은 산조나 판소리가 맺힌 한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음악으로 발산하고 있다. 즉 음악적 한풀이인 것이다.

더우기 판소리의 사설을 보면 긴장과 이완 또는 맺힘과 풀림이 한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판소리 사설 전체의 구성이 선악의 대립 또는 고통과 행복이라는 대립적 구조로도 알 수 있으나, 그 하나한의 단편에서도 언제나 맺힘과 풀림의 구조를 이룬다. 예를 들면 <심청전>에서는 슬픔 이별 장면에서 아닌 뽕덕어미의 익살이 곁들여지고, <흥부전>에서는 흥부 일가의 가난 묘사에 과장과 익살이 곁들여 있으며, <춘향전>에서는 춘향의 고초에 반해 방자의 익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소리가 한을 바탕으로 하는 전승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해학이 곁들여 있다는 것은 곧 그 속에 한의 맺힘과 풀림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V.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과 한풀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은 우리민족의 생명줄과 같이 삶의 바닥에 깔려있는 까닭에 문학이라고 침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우리 문학에 대하여 김상억(金尙億)은 “한국의 문학은 한을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 많다. 한을 떠난 문학은 옛날에는 없었다. 한을 그린 많은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서 우리민족의 한, 즉 동양적 한을 찾아볼 수가 있다.”¹⁹⁾고 하였다.

우리문학에서 이별의 애한이나 기다림의 정한은 주로 시문학에 나타나고 있다. 시가문학에서 최초로 정한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으로는 <황조가 黃鳥歌>와 <공후인 공후引>을 들 수 있다. <황조가>는 외로움의 한을 표현한 최초의 서정시이고, <공후인>에는 연민의 정한이 나타나 있다. 고려가요 가운데 한사(恨詞)로는 <西京別曲> <가시리> <動動> <鄭瓜亭>을 들 수 있다.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이별의 한을 <동동>과 <정과정>은戀君의 정한을 읊었다. <서경별곡>에서는 여인이 고향과 길쌈과 집까지도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

19) 沈鍾彦, 『情恨의美學』 (광주: 전남대학 출판부, 1979), p.220.

는 이별의 한에 항거하나, 끝내는 체념에 의한 긍정으로 한의 강인하고 즐기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시리>는 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여기서 한은 체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떠난 임이 다시 오지 않을 때 이러한 기다림의 한은 원으로 바뀔 것이다. <동동>은 임과 함께 있지 못한 외로움의 한탄이며, 임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애한이다. 또한 <정과정>은 신라 향가 중의 원가(怨歌)와 그 맥이 통한다. 처음에는 임이 그리워 우는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다시 임에게 사랑해줄 것을 애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별이나 외로움의 한을 노래한 서정적인 작품들은 그대로 조선 시대로 이어진다. 허난설헌(許蘭雪軒)의 <규원가(閨怨歌)>와 이해창(李梅窓)의 <李花雨 흠날릴 제...>등이 그 예이다. 시문학이 주로 개인의 한사(원사의 대립 개념)로 나타나던 것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격으면서 망국의 한이나 민중의 한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관료적이고 은둔적인 문학적 흐름이 현실과 역사인식을 요구되었으며, 문학의 현실 인식은 종래의 정한의 입장이 원한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민중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개인적인 정한에서 민중의 원한으로 문학이 눈을 돌린 것이다. 허균은 <노객부원(老客婦怨)>이나 <기견(記見)> 등에서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의 비운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여성의 원한을 그렸으며, 정약용은 <기민시(飢民詩)>나 <애절양(哀絶陽)> 등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지방관리나 아전들에 대한 원한을 읊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이러한 한의 문학은 그대로 근현대까지 이어진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많은 시인들이 한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김소월이나 서정주 등은 고려가요와 접맥된 정한을 노래한 것이고, 반면에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등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원한을 노래한 것이다.

시문학에 나타나는 애한이나 정한은 막연한 눈물의 미학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과 슬픔의 현실에서 체념을 배우며 관용의 인격윤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 정서가 상실감(임과의 이별)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는 정한적 의지관, 즉 생명의 의지나 허무에의 의지가 담겨있다. 더우기 망국의 한을 담은 시가가 말해주는 것은 절망도 좌절도 아니며, 그냥 앉아서 탄식을 한다거나 하는 무책임한 방관이나 숙명론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한의 참 뜻은 민족적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이고 행동으로 일어나자는 것이다.

고대 소설은 시와는 달리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긴 시간을 설정하여 묘사되기 때문에, 시적인 애한이나 정한의 정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회구하여 맺힌 한인 회한 또는 정한이 소설작품에 전혀 나타나지않는 것은 아니다.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 등은 회한을 작품을 통하여 이루어 본 것들이다. 이와 같은 류의 흐름이 김동인의 <배따라기>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서정주의에 가까운 소설들은 모두 이러한 회한이나 정한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대 소설에서 인간적 갈등의 심도가 크게 묘사되기 때문에 한은 대부분 원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원한을 다룬 작품으로는 <운영전(雲英傳)>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 등이 있고, 궁중의 원한이 나타난 궁중소설로는 혜경궁홍씨의 <한중록(恨中錄)>, 어느 궁녀의 <계추일기(癸丑日記)>와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 등이 있다. 이러한 소설들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원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명을 벗게 되거나 원혼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그 한을 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한과 한풀이의 형식을 갖는 작품으로는 허균의 <홍길동전>과 작자 미상의 <춘향전>을 들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천비 소생으로 원한이 맺히게 된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에는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자신의 영화를 누림으로서 사회에 대한 자신의 한을 풀고 있다. 또한 민족의 원과 한을 다룬 <임진록>은 현실로는 패배한 전쟁을 대승의 전사로 전환하여 민족의 해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고대소설들은 한풀이를 위한 평면적 이야기 전개로 끝나버린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나 심리 또는 개성이 무시되고 있다. 이처럼 고대소설의 사건 전개는 인물과 행동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풀이를 위해 작가가 미리 예정된 구성에 인물과 행동을 배치하여 버린 것이다.

현대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망국의 한이 보인다. <무정>의 망국한은 채만식과 염상섭을 거쳐 이무영·심훈·김유정·나도

향·김동리·박경리 등의 소설에서 나타난다. 1950년대 이후에는 조국 분단의 한으로 연결되고 있다. 분단의 한, 고향 상실의 한, 동족상잔의 한 등 분단시대의 민족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소설과는 달리 이것들에는 원한이 복수를 통하여 해원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풀어 민족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거나 가학자 쪽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원한 감정은 휴머니즘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설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또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갈등의 심도에 따라 한이 되기도 하고 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의 심도가 깊다 할지라도 원이 복수 의지로 발전하지 않고 종교적 해한의 차원으로 극복될 때에는 한이나 원은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소설에서 한이나 원이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도 또다른 유형의 한풀이라고 할 수 있다.

VI. 민간신앙에 나타난 한과 한풀이

종교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게 전승되는 신앙 형태인 민간신앙에서 한과 한풀이를 보자. 우리 민족의 민간신앙의 영혼관을 보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깃든 영혼인 생령과 죽은자의 영혼인 사령(死靈)으로 나눈다. 사령은 다시 선한 조령(祖靈)과 악령인 원귀(冤鬼)²⁰⁾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령은 살아있는 인간과 동일한 인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속에서는 인격적 대우를 해준다. 무속신앙에서 한과 한풀이의 대상은 이 악령인 원귀들이다.

그러면 왜 한국인의 신앙에 원귀가 문제시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삶 속에는 한이 생명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죽음에 임하여 인생의 결산표를 작성하여보니 적자여서 한이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는 죽음에 임해서 결산한 인생의

20) 冤鬼는 주로 원통하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 것인데, 특히 처녀의 죽은 영혼이 된 원귀가 가장 원한이 크다고 한다. 각 지방에 세워진 열녀정문의 반 이상은 이러한 원귀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朝鮮의 鬼神> 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6권, 재인용.

적자가 아니라도 생전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여한(餘恨)을 남기리라고 본다. 이것이 사후에 남아서 활동하는 원령(怨靈)이고 원귀이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면 잔학한 <이드>의 화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한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원한을 벗어나려 한다. 이것이 바로 무속적인 원한의 전이작용이다.

한에 관한 무속은 문헌으로 보아도 신라의 진지왕과 도화녀(桃花女)가 생전에 나누지 못한 정을 죽어서 이루어 낳은 비형(鼻荊)을 비롯해서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고려 때에는 왕인 인종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 점쟁이가 “그것은 모반으로 처형된 이자겸의 탕”이라고 하여 그의 처와 자식을 우대하였고, 또 무당의 말에 따라 내시를 파견하여 김제군에 신축한 벽골지(碧骨池)의 독을 헐게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원한을 품은 혼령이 왕의 병을 일으키게 했다는 믿음 때문이다. 조선시대부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붙어서 악행을 한다는 미명귀에 대한 얘기는 민담이나 소설 등에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다가 주로 산 사람에게 달라붙는다고 한다. 이 때 그 사람은 대부분 질병을 앓게 된다. 고대인들에게 병은 한 많은 귀신의 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속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최고의 기능은 치병이다. 이것이 사령제(死靈祭)이다. 사령제는 죽은자를 위로한다는 의미이나 그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은 죽은자의 맺힌 한을 푸는 한 풀이이다. 또한 산사람에게 달라붙은 질병의 살(煞)을 푸는 살풀이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망령을 저승으로 보냄으로서 후환이 없도록 하는데에 있었다.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이러한 풀이는 한많은 인생의 복수심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앙형태를 무속이라고 하는데, 무속에 나타나는 한의 맺힘과 풀림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무당의 입무식, 둘째는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것, 세째는 살아 있는 자의 병이나 살 또는 부정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첫번째 무당의 입무식 과정에서의 원한은 무당이 될 자의 원한이 있고, 무신(巫神)의 원한이 있다.²¹⁾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풀이²²⁾의 하나인 <바리공주

21) 이러한 무당을 특별히 강신무라고 한다. 중부와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영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된 명두형(또는 맹두형)은 죽은 아이의 영이 강신해서 무당이 된

>²³⁾의 무조신화이다. 이처럼 무당은 자신에게 맺혀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무당이 되고, 그 때 생긴 힘과 능력으로 남들의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된다. 한이 맺히고 그 한을 풀고 나오는 과정이 곧 성무절차에 수반된 시련과 그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한을 풀어주는 구실을 스스로 맡는 해한인들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은 입무과정에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강신무(降神巫)의 대부분은 자신이 한이 맺힌 것처럼 모시는 무신(巫神) 역시 한의 소유자들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은 최영장군·공민왕·임경업장군·사도세자와 같이 비운에 죽은 원한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을 많이 품고 죽은 원귀들이다. 특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어서 한이 많은 총각 귀신인 몽달비나 처녀 귀신인 손각시 그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아기 귀신인 명도 등이라는 점이다. 특히 젊어서 죽은 귀신은 많은 한을 품고 가며 또한 많은 한을 남기고 간다. 즉 젊은 영혼의 한은 죽은 원혼의 한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든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이, 이들의 한은 세상을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에게 맺히게 된다.

두번째는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한풀이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셋김굿²⁴⁾과 고평이이다. 원한이 깊이 맺힌자는 죽어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돈다는 내세관에 의하여 죽은 자의 천도를 꾀하는 의식이

다. 이 죽은 아이의 영은 주로 혈연관계가 있는 영이다. 여아의 영에 의한 무를 ‘명두’, 남아의 영에 의한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211쪽.

22) ‘본풀이’는 문예양식별로 분류할 때 서사무가(敍事巫歌)에 속한다. 이 무가는 소설과 같이 고유한 등장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23) ‘바리공주’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국왕의 부부가 딸만 계속 일곱을 낳아 일곱째 낳은 딸을 버렸다. 이 버림받은 딸이 바리공주인데, 한을 품으며 자란다. 그런데 왕이 병이 들자 이 버림받은 공주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약을 구해 왕을 살린다. 바리공주는 이 공으로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그래서 원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천도의 역할을 맡게되어 무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바리공주’는 지역에 따라서 ‘바리데기’ ‘오구굿’ ‘칠공주’ 등 10여개의 다른 이름과 약간의 다른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871-872쪽.

24) 호남지방에서 행해지는 죽은이의 영혼을 씻기는 굿으로 ‘오구굿’이라고도 하며, 중부지방에서는 ‘진오귀굿’이라고 한다.

다. 씻김굿은 죽은자의 옷을 입힌 인형을 쑥물과 청수로 씻는 의식이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맺힌 원한을 씻음으로 해서 영혼이 정화되어 저승에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풀이는 원령이 타고 저승으로 건너갈 ‘넋전’으로 쓰일 광목을 열두개 또는 일곱개의 매듭을 만들고, 그 하나 하나의 매듭을 푸는 의식이다. 이 매듭(고)은 살아서 맺힌 한을 상징하며 동시에 망령을 결박하여 구속하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고풀이는 원혼을 풀어 자유를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무속의 풀이는 망자의 원통함을 풀어서 천도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의 고풀이 무가에 잘 나타나 있다.

니제 망제님 원통히 생각 설리 생각 마르시고
 걸린 고도 푸르시고 매친 고도 푸르시고 설설이 푸르소서
 서럽고 가는 관은 오늘 날은 다 풀어 드릴 것이니
 아무쪼록이라두 받뜰구 안뜰구 치뜰아서
 걸린고 매친 고를 푸르시구
 시왕길을 밝혀 가옵소서²⁵⁾

씻김굿이나 고풀이는 모두가 원령에 응어리 지고 맺힌 한을 씻고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오구굿에서는 무당이 원령을 불러내어 실컷 푸념하게 하는 넋두리로서 맺힌 한을 풀고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낸다. 이 모두가 죽은자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한풀이이다.²⁶⁾

세번째는 살아 있는자의 병이나 살 또는 부정 등을 풀어주는 데에도 한의 맺힘과 풀림은 작용한다. 모든 질병이나 탈의 근원이 원귀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근원인 원한이 맺힌자를 풀어서 병이나 탈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죽은자의 원한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내용은 두 번째의 한풀이 유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병이나 탈에서 볼 수 있는 원한의 맺힘과 풀림이다.

이처럼 한국의 무속은 한의 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속의식에서 이러한 풀이

25) 金泰坤, 『韓國巫歌集』(서울:집문당, 1979), 72쪽.

26) 이러한 망인 천도의 굿 종류로는 진오기굿, 진오기새남, 천근새남, 오구굿, 망목이굿, 수왕굿, 해원굿, 씻김굿, 시왕맞이, 다리굿 등이 있다.

를 의미하는 곳은 ‘고풀이’라든가 ‘살풀이’ 이외에도 실풀이 · 軍雄풀이 · 三神풀이 · 거리풀이 · 액풀이 · 부정풀이 · 삼제왕풀이 · 손풀이 · 성주풀이 · 맹감풀이 · 산신풀이 · 귀양풀이 · 서낭풀이 · 칠성본풀이 · 문전풀이 등의 풀이 의식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민간신앙은 풀이의 신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VII. 정치에 나타난 한과 한풀이

개인적인 한이 아니고 정치체제나 사회제도가 빚은 원한은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가뭄이나 큰 비 또는 변란이나 질병과 같은 천재지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믿었다. 정치에서의 원한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정으로 인한 원한과 당쟁에 연결된 원한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정에 의한 원한만을 고찰한다. 당쟁에 의한 원한은 일부 특권 계층에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백성들에게 한을 남긴 것은 대부분 역(役)과 공(貢)이다. 역은 부역 · 정역(征役) · 노역 · 성역(城役) · 사역(寺役) · 세도가의 사역(私役) 등이 있었고, 조공의 횡포는 이율곡을 통탄케 했던 방납제(防納制)를 필두로 해서 황구첨정(黃口籤丁) · 백골징포(白骨徵布) · 인징(隣徵) · 족징(族徵) 등이 있었다. 이 공역(貢役)의 정치적 횡포가 민원을 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 가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하급관리의 부정부패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에서 민원을 사는 정치적 횡포는 통치의 수반인 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패한 관료들 즉 탐관오리에 의한 것들이 주로 문헌에 전해진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백성들은 항상 한을 품고 살아왔다. 이 한은 개인간에 맺어진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백성이 특정인에 대한 한을 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민중이라는 집단이 폭정을 하는 왕이나 탐관오리들에게 품는 것이다. 더우기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민중들이 품는 한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자탄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제도 또는 하늘과 같은 우주론적인 불투명한 대상에 대한 집단적으로 응어리 진 한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한은 항상 우주론적인 차원과 연관 짓고 있다. 다음은 그것

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인데, 이 내용은 하륜(河崙)이 큰 가뭄이 지속될 때 태종에게 올린 상소의 일부이다.

생가컨대 신하가 원을 품으면 6월에 서리가 내리고, 한 여인에 원억(冤抑)한 일이 있으면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어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고 하였사온데, 이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이치가 어찌 고금을 두고 서로 다를 바 있겠습니까.²⁷⁾

하륜의 이 발언은 유명한 태종우(太宗雨)의 고사를 낳은 전후후무할 정도의 대한밭이 일어났을 때의 것이다. 이 때 그 한밭로 말미암은 원한에 대한 논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백성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형소(刑訴)에 걸린 자를 구원해 주는 일을 비롯하여, 궁녀를 궁외로 내보내는 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돕는 일, 무덤도 없이 뼈가 흩어져서 텅구는 주검을 거두어 묻어 주는 일 등을 논의 하였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밭의 원인이 백성들의 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자의 의무는 당연히 백성들의 한을 푸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에서는 이것을 해원치우(解冤致雨)라고 하였다. 조선 정치사에서 해원은 치자의 도이며 곧 천리에 순응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조선조의 정치이념에 백성의 원한과 그것을 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이념인가 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원한과 관련된 단어를 보면, 신원(伸冤)·심원(審怨)·함원(含冤)·호원(號怨)·소원(訴冤)·회원(懷怨)·원고(怨苦)·원옥(冤獄)·원귀(冤鬼)·원원(冤怨)·유원(幽怨)·분원(憤怨)·원민(冤悶)·광부원녀(曠夫怨女)·민원(民怨) 등이 나타난다.²⁸⁾ 이들 원한과 관련된 어구들은 한밭이 들거나 뇌동(雷動)이 일거나 장마가 계속되거나 하는 천재지변이 닥칠 때와 역병이 돌 때마다, 그 원인을 캐고 대책을 세우고자 조정에서 논의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조선조의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성의 원한은 항상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다루며, 치정의 성패 여부를 원한의 진무 여부에다 두고 있다. 백성의 원한을 치정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백성의 원한을 천기와 맺어놓고 있다는 것이

27) 김열규, 앞의 책, 55-56쪽, 재인용.

28) 김열규, 위의 책, 244쪽.

다. 즉 민한은 천한이고, 민원은 천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하늘의 기가 대기라면 민심의 기는 소기이고, 그 양자는 서로 호응한다고 본 사상이다. 따라서 민원이 뭉쳐서 천원이 되면 천지의 조화를 깨뜨려서 자연섭리의 파탄이 빚어지고, 그 결과로 왕권의 붕괴는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곧 민천합일의 원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 때문에 치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듯이 백성의 원한을 두려워 하였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미리 방한을 하고, 이미 일어난 백성의 원한을 푸는 해한 내지 치한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의 변조를 빚는 원인을 민원에서 찾은 것이고, 민원의 원인을 정사의 변조에서 찾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통치이념에서 민원의 거울이 곧 하늘이었다. 따라서 하늘의 변조가 분명하면 하늘에 빌기에 앞서 민원부터 풀어야 했고, 그러자니 민원의 뿌리를 찾아야 했다. 이것이 심원(審怨)이다. 심원은 먼저 왕 자신의 실정이나 부덕함을 살피고, 민원을 살만한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였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먼저 왕이 좁은 편전에 거하며 끼니를 줄인다든가 하는 등의 왕의 근신이 있었다. 이러한 통치자의 근신은 이미 고구려 평원왕(563년) 때 큰 가뭄이 들자 왕이 식사량을 줄이고 근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⁹⁾ 그리고 나서 호패법의 시행을 완화하거나, 공부를 줄이거나 늦추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군병이나 궁녀를 일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죄수를 풀어주는 일 등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한을 풀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치이념 중에서 한이 맏히기 쉬운 환(鰥)·과(寡)·고(孤)·독(獨)의 무리를 궁민(窮民)이라 하여 가장 으뜸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했다.³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일 자체가 민원을 사고 천한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사는 온전히 이 방한과 치한에 주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해한의 철학적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정(仁政)이다. 여기서 인이란 왕이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이며 바꿔 말하면 현(賢)이다. 회재 이언적(李彦迪)은 인은 원(元)이라고 하고 있다.³¹⁾ 역경(易經) 사상으로 보면, 원이란 간원

29) <한국민족대백과사전> 8.

30) 정약용, 『목민심서』 振窮篇 (서울:창작과 비평, 1982). 이 사상의 전거는 이미 『맹자』 梁惠王章句下 好貨好色章 第五에 나온다.

31) 이언적은 그의 상소문에서 그 당시의 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병 수군은 토복에 지치고 징발되어 역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땅을 모조리 팔아서 역사에 임하고, 집

(幹元)이고 곤원(坤元)이니 곧 하늘의 원이고 땅의 원이다. 건원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비롯되고, 곤원으로 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따라서 왕이 인을 베푸는 것은 곧 천지화육(天地化育)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인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인간과 천지의 화기(和氣)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정은 곧 방한(防恨)이며 해한 또는 해원의 근원이다. 무당이 종교적 해한자였다면, 조선왕조의 통치자는 정치적 사회적인 해한자였던 셈이다.³²⁾

VII.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심층에 응어리져서 침잠된 정신적 어혈로서 우리 민족만이 갖는 고유한 정서이다. 이러한 한은 단순히 의식 내에 응어리지고 맺히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해서 풀림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한맺힘’이고 ‘한풀이’이다. 우리 민족은 한이 잘 맺히기도 하나 또한 한풀이도 잘한다. 이러한 민족적 특질이 우리 문화 속에서 슬픈 정서로 또는 신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과 한풀이를 좀더 깊이 고찰하면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학적 눈물 속에서 체념되어 차라리 아름답게 느껴지는 情恨感情이고, 둘째는 한을 맺개한 상대에 대한 사무친 원한으로 복수지향적인 의지이다. 일반적으로 ‘한’이라는 한국적 한의 대부분은 전자의 유형이고 이것은 민요와 판소리와 같은 민중음악과 시와 같은 문학류에서 풀이라는 형태로 해소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양갓음 유형의 한은 일부의 무속이나 설화 속에서 ‘원한’이 맺힌 원귀(冤鬼)로 나타나고, 민중의 집합적인 한은 원(怨) 또는 원(冤)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천재지변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恨)과 원(怨)과 원(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사 속에서 이 세 술어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혼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구별을 단

에 돌아가서는 생업이 없으며 그 원망하는 기운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렇게 하고서 화기(和氣)가 느껴지고 비 오고 별 나는 것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은 아득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 김열규, 앞의 책, 248쪽.

32) 김열규, 위의 책, 25쪽.

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의 미흡한 역량으로 한(恨)과 원(怨)과 원(冤)의 개념을 한국사상 속에서 그 의미를 구별한다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한은 원통한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서 체념되어 축소되거나 변질된 정한의 감정이다. 둘째 원은 자신에게 원통함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분노가 집적되어 앙갚음을 하고자 하는 복수의지이다. 셋째 원(冤)은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원한(怨恨)의 감정과 그에 따른 복수의지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경우 원귀로서 그 혼령이 갖는 감정과 의지이다. 다른 하나는 민중들의 집단적인 원한이 하늘과 땅에 응하여 천재지변을 일으킨 우주론적인 힘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생전의 원(怨)이 사후에 원(冤)이 되고, 민중의 원한이 의지로 남아있으면 원(怨)이고, 이것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면 원(冤)이다. 따라서 한과 원(怨)이 순수한 심리적 개념이라면, 원(冤)이란 반은 심리적이고 반은 형이상학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추를 통해서 해원사상을 본다면, 이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차원의 맺힘을 푸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해원(解冤)은 인간 대 인간은 물론이며, 인간 대 귀신, 인간 대 천지(우주), 개인 대 집단(사회, 국가), 집단 대 집단 사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은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이나, 넓게는 사회·국가·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해원이 확대될 때 상생(相生)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홍철·김상일·조홍윤, 『한국종교사상사Ⅳ』,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김태곤, 『韓國巫歌集』, 서울: 집문당, 1979.

김열규, 『恨脈怨流』, 주우, 1981.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류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민속학회 편, 『민간신앙』, 서울: 교문사, 1989.

서광선 역음, 『恨의 이야기』, 서울: 청노루, 1988.

- 申一徹, 『한국의 思想家十二人』, 서울: 현암사, 1975.
- 신태웅, 『한국귀신연구』,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89.
- 沈鍾彦, 『情恨의 美學』,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79.
-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 서울: 정음사, 1987.
- 尹泰林,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0.
- 이강열, 『한국민속의 이해』, 서울: 경서원, 1995.
- 이규태, 『한국인의 샤머니즘』, 서울: 신원문화사, 2000.
- _____, 『한국인의 의식구조 2』, 서울: 신원문화사, 1993.
- 정약용, 『목민심서』, 서울: 창작과 비평, 1982.
-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巫,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서울: 민족사, 1997.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巫敎』, 서울: 서광사, 1997.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 최길성, 『한국인의 恨』, 서울: 예전사, 1996.
-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원의 양상과 해원』,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 박용철, 『전경에 나타난 원의 본질과 구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집, 1996.
- 문순태,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의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1983.
-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년 9월 23일자.
- 임영창, 『해원상생의 다원적 고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 조정호, 『한국무교에 대한 교육적 이해』, 서울: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0.
- 주현철, 『원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연구』,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Haewon(해원) through the Korean Feeling

— Focus on Han(한) and Hanpuli(한풀이)

Youn Ki Bong

(Dae Jin University)

《Abstrac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grudge. The historical point of time cannot be the exception of this hypothesis. All the more, all human beings are led to annihilable situations because of a negative aspec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ggravated grudge by destruction of spirit and thought, moral corru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an and Haehan which deserve narrow meaning of grudge and Haewon by replacing grudge and Haewon with Han and Haehan as a course to understand Haewon Thought.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 will discuss how Han revealed as deeply concealed Korean national feelings and what kind of effect did Han have on national culture and overall society. Especially, I will illuminate that a series of conditions is not just a revenge-oriented one but has Haehan structure based on reconciliation of humanism.

Through this course, I am going to clarify that Haewon Thought shown in Daesun Thought is not restricted in the level of human but expands to society, nation and even universe.

Key Words : Han(恨), Grudge(怨恨), Hanpuli(恨풀이), Bearing and Solving Han, Shamanism.